

안 그래픽스 인쇄, 사진, 디자인 안희탁 스테파노 404-717-9897	이강연 CPA 미카엘 770-279-2770 info@mklcpa.com	리 장례식장 Lee's Funeral Home & Crematory 이국자 770-401-7616 귀 넷 770-622-2525	PIWC Group Agency 자동차, 집, 사업체, 종업원 상해 보험 장인옥 베드로 404-644-8658	SB 건축&철공 House 내부수리 일체 철구조물 수리 제작 방성호 크레센시오 678-599-0200	오즈 냉 동 에어콘, 히팅, 냉동 원동훈 유스티노 770-910-5656
 로렌 배 보험 (모니카) 자동차/집/사업체/건강 404-282-1654 3775 Venture Dr. #M202 Duluth, GA 30096	배용자 루시아 보험 금융 생명보험 건강보험 은퇴연금 장기간호보험 뮤추얼 펀드  678-665-5400 3720 Davinci Court, Suite#150 Peachtree Corners, GA 30092	미소 치과	남상우 시론 남수진 세실리아 770-814-7533 4195 Pleasant Hill Rd #200, Duluth, GA 30096	 오약국 모든보험 수령 / 저렴한 약값 470-223-4775 10820 Abbotts Bridge Rd, #240 Johns Creek, GA 30097	 SMILE 1 DENTAL GROUP 스마일원치과 678-835-9550 1120 Peachtree Industrial Blvd #203, Suwanee, GA 30024
 메디케어 / IRA / 연금 생명보험 / 오바마케어 한재만 그레고리오 404-272-6157	 스완니 교정 치과 김범수 니콜라오 678-482-9434 0% Interest 주말 예약 가능 카톡상담(Suwaneeortho)	확실한 카이로프랙틱  테조은 척추 운동상해(골프, 테니스 전문) 및 교통사고 박찬규 레오 678-473-0552 6630 McGinnis Ferry Road Suite B, Johns Creek, GA 30097			
 MASTER REALTY 김선민 요안나 부동산 404-285-6472	 KELLERWILLIAMS 오현정 유리안나 부동산 Juliana OH 678-908-4945	 만 천 흥 명품 중식 레스토랑 770-454-5640 5953 Buford Hwy NE #105 Doraville, GA 30340 매주 월요일 화요일은 쉽니다.			
 김옥경 에밀리 부동산 M. 770-912-8282 O. 404-843-2500	 조앤리 아네스 부동산 678-770-1136 realtorjoanne@gmail.com	TOP 조경 Lawn Maintenance 잔디관리 전문(가정, 상업용) 남기원 요한 404-966-1919 2547 Old Rockbridge Road, Norcross, GA 30071			
 VINEYARD REALTY "부동산과 용자를 한곳에서" 조셉 김 678-361-6230 GMC용자 켈리 김 770-634-5646	정승욱 미카엘 변호사 Law Office Of Michael S. Chung, LLC 이민 · 입양 · 클로징 · 상법 · 유언 무료상담 770-495-9994 2174 pleasant hill RD #204C Duluth GA 30096	RIVERBEND Tire & Auto Service, Inc. 리버밴드 오토 변대건 안드레아 404-663-7984 Office 770-623-5940 3322 Peachtree Industrial Blvd, Duluth, GA 30096	So Good (Bridal&Beauty)  678-474-4979 3480 Steve Reynolds Blvd Duluth, GA 30096 @sogoodbridal www.sogoodbb.com		
주보 광고 문의 kmccga.bulletin@gmail.com	 GIFTS GOLD · CROSS · REPAIRS · 십자가, 성상 · 성화, 묵주, 책 · 신발수선 · 금, 은, 주문제작 · 타-셔츠 프린팅 성물점 770-614-1738 3255 Lawrenceville-Suwanee Rd. #L Suwanee, GA 30024	 678-474-4979 3480 Steve Reynolds Blvd Duluth, GA 30096 @sogoodbridal www.sogoodbb.com			

이틀린타 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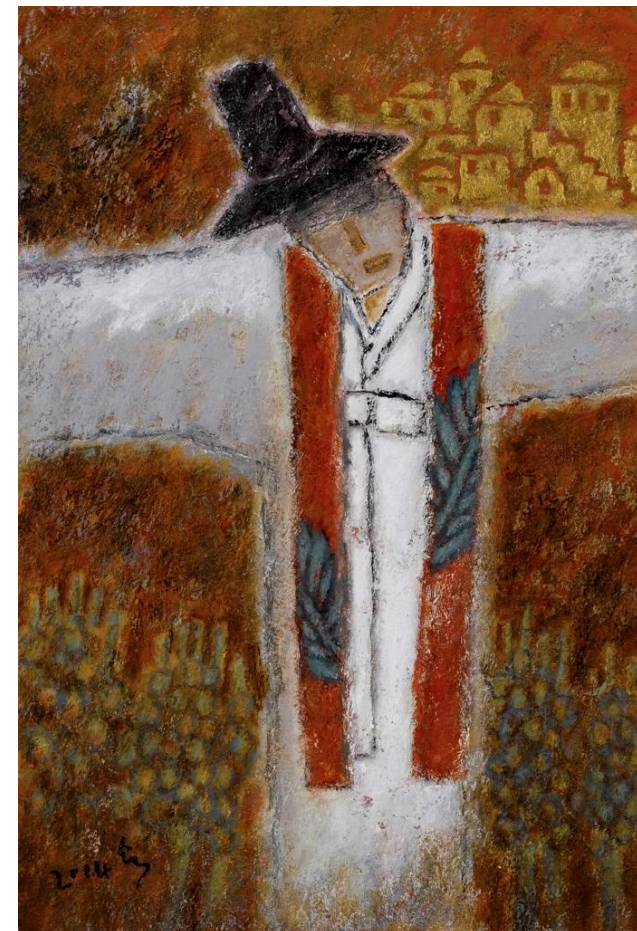


이틀린타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주임신부 구동욱 미카엘 micku@kakao.com | 보좌신부 김성현 라파엘 raphaelkimsj@gmail.com
사목회장 남현석 요셉 josephnam2011@gmail.com
전화 770.455.1380 | 팩스 770.455.4262 | Email kmccga.office@gmail.com
주소 6003 Buford Hwy. NE., Doraville, GA 30340 | URL http://www.kmccga.com

2022년 9월 4일

NO.2163



〈순교자들〉, 김옥순수녀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루카 14,26-27)

연중 제 23주일

- 입당송** 시편 119(118),137.124 주님, 당신은 의로우시고 당신 법규는 바르웁니다. 당신 종에게 자애를 베푸소서.
- 제 1독서** 지혜서 9,13-18 누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 화답송** 시편 90(89),3-4.5-6.12-13.14와 17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 제 2독서** 필레몬서 9-10.12-17 이제 그를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 돌려받으십시오.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빛나게 하시고 당신 법령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
- 복음** 루카 14, 25-33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 영성제송** 시편 42(41),2-3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루카 14,1.25-33)

그때에 25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26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가 될 수 없다.
 27 누구든지 제 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가 될 수 없다.
 28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29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30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 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31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이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만 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32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평화 협정을 청할 것이다.
 33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가 될 수 없다.”

오늘의 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성서 말씀 중에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성서 구절에 머물러 보았습니다. 각자가 짊어지고 가야하는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조심스레 따라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각자의 십자가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십자가는 자기 몸보다 더 큰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목에 걸려 있는 목걸이 크기 정도의 십자가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십자가가 다 다른 것 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의 마음 가짐 또한 다를 것입니다. 무겁고 큰 십자가를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가볍게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작은 십자가 마저도 힘들고 무겁게 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상대적인 것이어서,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나보다 작아 보이고, 가벼워 보이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지치는 삶의 여정 안에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언덕 위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잘 따라오라고 손짓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 때는 땀을 닦고, 숨을 고르며 예수님이 계신 곳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때는 십자가의 크기나 무게와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의 십자가를 예수님께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삶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같이 가고 있는 가족, 이웃, 공동체의 어려움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마무리하며 흐뭇하게 미소짓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신발끈을 묶고 한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청해 봅시다.

| 성 찰 |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께 봉헌해야 하는 나의 무질서한 집착들에 대해서 성찰해 봅시다.

순교자 성월



「배관겸 프란치스코」, 바오로딸콘텐츠

한국 교회는 해마다 9월을 ‘순교자 성월’로 지내면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삶을 본받도록 이끌고 있다. 순교란 신앙을 지키고자 목숨을 바치는 행위이다. 순교자들은 하나님과 하늘 나라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지키고자 목숨까지 내놓는 순교를 받아들였

다. 이 9월은 특별히 우리나라의 순교 성인 103위를 비롯하여 순교 복자 124위 등 수많은 순교자의 굳센 믿음을 본받고자 다짐하는 때이다. 한국 교회의 순교자 성월은 1925년 로마에서 거행된 ‘조선 순교자 79위 시복식’이 계기가 되었다. 한국 교회는 이듬해부터 9월 26일을 ‘한국 치명 복자 79위 첨례(축일)’로 지냈는데, 이날이 기해박해(1839년)와 병오박해(1846년) 때 순교한 79위 복자 가운데 가장 많은 이가 순교한 날이기 때문이다. 1968년에는 병인박해(1866년)의 순교자 24위가 시복되었다.

1984년 5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방한하여 이들 103위 복자를 시성하였다. 또한 2014년 8 월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나라를 찾아, 순교자들 가운데 103위 성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순교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고 지역에서 현양되던 124위를 시복하였다. 한국 교회가 공식적으로 ‘복자 성월’을 선포하지는 않았으나 1925년의 79위 시복 이후로 복자들을 현양하고 공경하는 신심이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9월 한 달을 복자 성월로 지내게 되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1984년 103위의 시성에 맞추어 복자 성월을 ‘순교자 성월’로 바꾸고, 9월 20일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로 경축하고 있다. 순교자들은 평소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았기에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다. 오늘날은 피를 흘리며 신앙을 증언하는 시대가 아니지만, 선조들의 순교 영성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겠는가?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이겨 내고자 노력하는 자세가 그 첫걸음일 것이다.



「하인백 야고보」, 바오로딸콘텐츠

한국 순교자들에게 바치는 기도

- 이땅의 모든 순교자여, 당신들은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굳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나이다.
- 저희는 현세에서 악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며 당신들이 거두신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고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위대하신 순교자들이여, 천상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와 함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주소서.
- 지금도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교회를 붙들어 보호하시며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지역에게까지 널리 퍼시도록 빌어주소서.
- 용감하신 순교자들이여, 특별히 청하오니 우리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 당신들은 이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사시다가 목숨까지 바치셨사오니
- 전능하신 하나님께 빌어주시어 교회를 이땅에 날로 자라게 하시며 사제를 많이 나게 하시고
- 신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냉담자들은 다시 열심해지며 갈린 형제들은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비신자들은 참신앙으로 하나님을 알아 천지의 창조주 인류의 구세주를 찾아오게 하소서.
-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이여, 저희도 그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빌어주시어 저희와 친척과 은인들께 필요한 은혜를 얻어주소서.
- 또한 저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믿어 증언하며 비록 피는 흘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은총을 입어 선종하게 하소서.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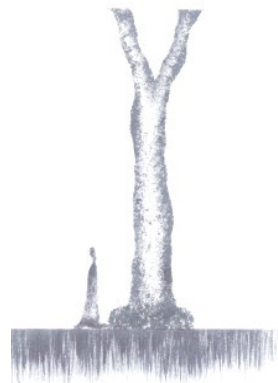
부족한 것들 < 루카 14,1. 25-33 >

배경길 베드로 신부

굳이, 이 돌을
써야겠습니까?

굳이, 이 나무를
세워야겠습니까?

투박하니
멋진데 왜?
꼭 너 같잖아.



8월 28일 (일)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보좌신부님과 함께



8월 28일 (일) 주일학교 수업모습



8월 27일 (토) 레지오 전단원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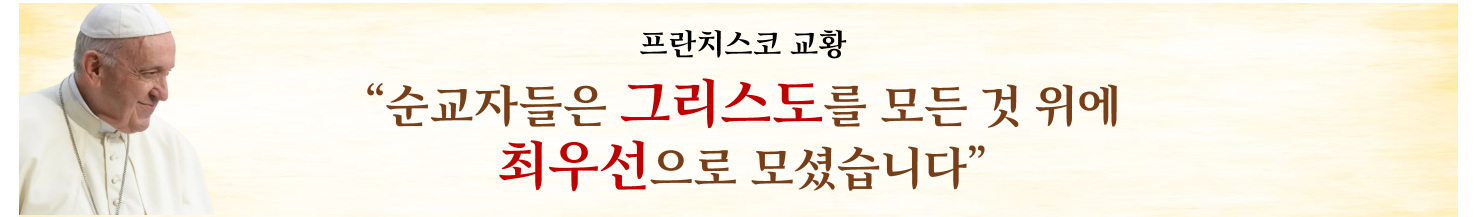


자녀를 위한 기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자녀를 주시어
창조를 이어가게 하셨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길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사랑하는 저희 자녀를
은총으로 보호하시어
세상 부패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온갖 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 놓을 수 있겠습니까?”(로마8,35) 성바오로는 이 구절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영광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 신앙의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과 결합시키시어 당신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셨고, 그분의 승리는 또한 우리의 승리입니다! 순교자들의 승리, 곧 하느님의 사랑의 힘에 대한 그들의 증언은 오늘날 한국 땅에서, 교회 안에서 계속 열매를 맺습니다. 한국교회는 순교자들의 희생으로 이처럼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신비로운 섭리 안에서, 한국 땅에 닿게 된 그리스도교 신앙은 선교사들을 통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한 민족, 그들의 마음과 정신을 통해 이 땅에 그리스도교 신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복음과 처음으로 만난 한국의 첫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열게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더욱더 많이 알고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에 대한 무언가의 깨달음은 곧 주님과 만남으로 이어져, 첫 세례들과 더불어 충만한 성사 생활과 교회적 신앙생활에 대한 열망, 그리고 선교 활동의 시작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믿음의 첫 씨앗들이 뿌려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순교자들과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를 것인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당신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이라는 주님의 경고(요한

17,14 참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됨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것은 박해를 의미했고, 또 나중에는 산속으로 들어가 교우촌을 이루게 됨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희생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우 자주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의해 도전 받음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양보해 타협하고, 복음의 근원적 요구를 희석시키며, 시대 정신에 순응하라는 요구를 받게됩니다. 그러나 순교자들은 그리스도를 모든 것 위에 최우선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다른 온갖 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원한 나라와 관련해서 보아야 함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순교자들은 우리 자신이 과연 무엇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이 과연 있는지를 생각하도록 우리

순교자들은 그리스도를 모든 것 위에 최우선으로 모셨습니다. 우리가 순교자들의 모범을 따르면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믿는다면, 우리는 순교자들이 죽음에 이르도록 간직했던 그 숭고한 자유와 기쁨이 무엇인지 마침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에게 도전해 옵니다. 우리가 순교자들의 모범을 따르면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믿는다면, 우리는 순교자들이 죽음에 이르도록 간직했던 그 숭고한 자유와 기쁨이 무엇인지 마침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유산은 선의를 지닌 모든 형제자매들이 더욱 정의롭고 자유로워며 화해를 이루는 사회를 위해 서로 화합하여 일하도록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와 온 세계에서 평화를 위해, 그리고 진정한 인간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2022년 9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기도 지향
「인간의 불가침성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사형 제도의 법적 폐지가 모든 나라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내용출처 - <https://cbck.or.kr/Pope/Prayer>]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2년 8월 28일 (연중 제22주일)

교중미사(10:30am)...	233명	주일헌금	\$ 4,485.00
아침미사(08:30am)...	95명	주일헌금(온라인) ...	\$ 9.00
영어미사(12:15pm)...	108명	교무금	\$ 2,625.00
특전미사(05:30pm)...	49명	교무금(온라인)	\$ 100.00
미사참례 총	485명	감사헌금	\$ 200.00
		성물방	\$ 31.00

교무금 명단

강용조 (8)	김원봉 (9)	소종선 (8)	윤기태 (8~9)	이천균 (8)
강익수 (9)	민수중 (9~10)	안근순 (1~6)	이승구 (8)	장민재 (9)
길영애 (8)	박영희 (8)	안금환 (7~8)	이종상 (9)	정창래 (9)
김세경 (7)	박재석 (7)	양재준 (6~7)	이지영 (8)	조기영 (8)
김영홍 (6~8)	박재영 (8)	원동훈 (8)	이진승 (8)	최철민 (8)

- ### 교무금/ AA 기금 약정/ 봉헌 안내
- 2022-2023 회계연도 교무금 약정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금을 내실 때 **월 표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AA기금 약정도 계속 성당 사무실에서 받고 있으오니 약정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봉헌시 이름과 신자 번호, 봉헌 내역 등을 함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생미사, 연령미사 봉헌은 우편으로 미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2022/2023 교무금 월 약정자


강규상	박두환	이동춘	전 홍
강용조	배정희	이복화	정용선
곽흥배	백현숙	이봉조	정지윤
김남우	손철영	이수진	정창래
김루시아	서상희	이승구	조보현
김영철	서재욱	이주미	조성환
김일환	서혁규	이창호	지승남
김태규	설재규	이홍규	차영수
김향순	송용덕	이홍철	최동순
김홍섭	심충섭	이현두	한성인
김 훈	양경직	이현옥	
남상우	양재준	장민재	
문명재	오상수	전근섭	

본당 코로나-19 방역지침 변경 안내

(2022년 7월 24일(일) 부터 적용)

Covid-19 위험도 증가에 따른 유기적 대응의 일환으로 본당 방역지침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수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에틀랜드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제26대 사목회



구역미사

9/16 (금) 7:30 pm	알파레타 1 구역 남기원 요한 404 966 1919
9/23 (금) 7:30 pm	알파레타 2 구역 서미영 아네스 404 610 0057
9/30 (금) 7:30 pm	던우디 구역 -

Amazon 스마일 펀드레이징 캠페인

- 청소년기금마련을 위한 아마존 스마일 프로그램은 구입금액의 0.5%를 본당으로 보내어 션이 됩니다.
- 이용방법: smile.amazon.com 에서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2022년 AA 기금

2022년 8월 28일 (연중 제22주일)

교구 할당액	\$ 54,300.00
달성률	88.7%
누계 약정액	\$ 22,500.00
누계 납부액	\$ 48,163.00
금주 납부액	\$ 870.00

2022 AA 기금 납부자

김원봉	소종선	이홍규	장민재
김현길	이승구	이홍철	최철민

금주 후원금

감사헌금	손창욱
------	-----

2차 헌금

교구 2차헌금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이 9월 3일 (토)/4일 (일)에 있습니다.

전례 봉사

날짜	해설	독서	복사
9/3 (토) 오후 5:30	고승찬	윤 결 김경민	-
9/4 (일) 오전 8:30	서정원	윤준호 윤영미	
9/4(일) 오전 10:30	박출리	최창희 김선민	
9/4 (일) 오후 12:15	Mary	Sara 김매튜	-
9/10 (토) 오후 5:30	유성희	김보근 박주현	-
9/11 (일) 오전 8:30	김현숙	서상희 서정원	
9/11(일) 오전 10:30	이경환	고근배 고숙영	
9/11 (일) 오후 12:15	Mary	Derek Rachael	

본당 캘린더

9월 3일 (토)	• 성모 신심 미사
9월 4일 (일)	• 성 루가 의료 봉사회 진료
9월 11일 (일)	• Bridge Mass • 구리아 월례 회의 • 성서 봉사자 회의 • 새신자 환영 모임
9월 18일 (일)	• 본당의 날

행사 및 모임 안내

- ◆구역장 회의
일시: 9월 4일 (일), 11:30am, 112호
문의: 김영경 (770-676-8672)
- ◆구리아 월례 회의
일시: 9월 11일 (일), 12:30pm, 소성당
문의: 왕미카엘라 (352-359-4283)
- ◆성서 봉사자 회의
일시: 9월 11일 (일), 12pm, 112호
문의: 이혁륜 (404-518-7373)

"가을 맞이 꽃 마당, 앞마당"

- 일시: 9월 11일(일), 12:00pm
- 장소: 113호
- 대상: 꽃과 푸른잎을 사랑하고 발을 가꾸는 모든 분
- 문의: 서미영 아네스 404-610-0057

본당 알림

- 성가대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김진용 (678-478-7830)
- 장례 미사 및 연도 요청은 연령회에 팔히 연락하길 바랍니다.
- 알루미눔 캔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의: 박정미 로시타 (901-832-3306)
- 혼인성사를 요청하는 경우 6개월 전에 팔히 사무실로 신청하길 바랍니다.
- 가정에서 보관 중인 연도책은 성당 사무실로 반납 바랍니다.
- 상반기 주보 광고비를 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보 관련 문의 : kmccga.bulletin@gmail.com
- 본당 성물방 시간 : 일요일 9:30am~1:00pm (예약 주문/상담가능)

성당 학교 소식

- 주일 학교 안내
시간: 매주 일요일, 10:30am~12:00pm
문의: 김시윤 루피나 kmccga.youngadult@gmail.com
- 토요일 대건 한국학교
시간: 매주 토요일, 9:15am~12:30pm
문의: 노시현 네오미시아 678-677-3515

복사단 신입 단원 모집

대상: 첫영성체를 한 8학년까지 주일학교 학생들
문의: 소 루도비코 (404-434-8163)

미사 시간 안내 (Mass Schedule)

일요일	• 8:30am • 10:30am(교중미사) • 12:15pm(영어미사)
토요일	• 5:30pm(특전미사/청년)
화, 금	• 12:00pm
수, 목	• 7:30pm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주 토요일 12:00pm
Bridge Mass	1st Sunday 4:00pm

- ◆ 고해 성사: 미사 시작 30분 전
- ◆ 성시간: 목요일 저녁 미사 후
- ◆ 사무실 시간 | 일요일: 7:00am-3:00pm
월요일: 휴무
화-토: 10:00am-6:00pm

봉사자들을 위한 성서 영성 독서회

- 내용: 요한 복음 산책 5권~7권
- 일시: 9월 8일 (목) 6:00pm - 7:00pm
- 장소: 소성당
- 문의: 이혁륜 404-518-7373
임혜수 404-246-8142

2022-2023 예비자 교리반

- 수업기간: 2022년 9월 11일 - 2023년 4월 9일
- 수업시간: 매주 일요일 9:00am
- 수업 외 일정: 본당 입교식/선발식/수도원 방문/수련식/세례 견진 성사/환영식
- 문의: 나상숙 678-933-7313 서미영 404-610-0057

새신자 환영 모임

일시: 9월 11일 (일), 12:00pm
장소: 104 & 106호
문의: 김홍준 로마노 (770-895-1000)

30-40대 부부 모임

- 일시: 9월 11일 (일) 1:30pm
- 장소: 친교실
- 대상: 영어권 및 한국어권 부부 모두
- ▶ 점심 제공 (Lunch will be served!)
- 문의: 이시훈 미카엘(Si Lee) artsillyb@gmail.com

본당의 날 행사

- 일시: 9월 18일 (일) 12:00pm - 3:20pm
- 장소: 친교실
- 내용: 장기자랑, 놀이마당(어린이는 주차장에서 별도 놀이마당 운영), 퀴즈대회, 경품추첨, 구역 및 단체 사진 전시
- 문의: 남기원 요한 404-966-1919

기도 부탁드립니다

병 중에 계신 분들

김미영(인덕마리아)	이금숙(세실리아)
김원봉(대건 안드레아)	이수진(브렌다노)
민병숙(라파엘라)	조갑득(마리아)
박덕자(빅토리아)	조경희(글라리아)
박정자(데레사)	채종현(아오스당)
박평하(요한)	최대일(프레드릭)
유옥희(모니카)	최순례(아나타시아)
이기산(스테파노)	

특별한 지향을 위하여

2022년 세례를 받으신 분들과 견진을 받으신 분들을 위해

Welcome Mass 환영 미사 이벤트

- 일시: 9월 10일 (토), 5:30pm
- 장소: KMCC
- 대상: Young Adult (신자와 비신자 모두 환영)
- ▶ 음식, 이벤트, 소정의 상품을 제공합니다.
- 문의: 윤결 770-331-5272, 최수연 770-328-0796

KMCC BRIDGE MASS

- 일시: 9월 11일 (일), 4:00pm
- 장소: 소성당
- 대상: Young Adult (영어권 및 한국어권, 청년들과 기혼자 모두 참가 요망)
- ▶ 미사 후 친교실에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 문의: 도효준 404-939-3646

한가위 상차림 예절

- 일시: 9월 10일(토) 5:30pm
9월 11일(일) 8:30/10:30am
미사 15분전
- 문의: 조보현 404-422-0091

연령미사 신청은 9월 9일(금)까지 사무실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성 루가 의료 봉사회 진료 안내

- 일시: 9월 4일 (일)
- 장소: 소성당
- 진료시간: 12:30 ~ 2:30pm
- 진료 과목: 내과 지승남
비뇨기과 전홍
한방과 양경환
- 문의: 지승남 470-747-2000 서병익 706-583-4096

9월에가는 여름캠프

- 일시: 9월 23일 (금)~9월 25일 (일)
- 장소: Destin, FL
- 회비: \$100
- 참가인원: 선착순 25명
- 문의: 윤결 바오로 770-331-5272